PA맨의 資質論

金 穨 玉
〈韓國原子力産業會議 弘報專門委員〉

1. 머 리 말

1989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한해의 마지막달 12월이 오면 직장에서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하는 매우 바쁜 시간인줄 아는데 이렇게 연수에 참가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2월하면 저는 먼저 "화투"의 "비광"을 생각하게 된다. 그 이유는 비광에 들어있는 그점의 의미에 있다.

비오는 날 우산을 받고 서있는 사람은 일본에서는 널리 알려진 大野道風이라는대서예가이다. 오오노씨는 비오는 어느날 창작작업이 뜻대로 되지않자 붓을 꺾어 버리고 강가로 나왔다. 그런데 버드나무아래서 개구리 한마리가 나무에 뛰어 오르려고 점프를 하고 있는데 몇번을 해도 나무가지에는 닿지를 않았다.

오오노씨는 이제 그만 단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개구리는 계속해서 점프를 시도했고 마침내는 늘어진 버드나무가지를 휘잡아 나무에 오르는데 성공했다.

오오노씨는 깨달았다. 저 미물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여 성공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자기의 뜻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겠는가. "다시 붓을 들자." 이렇게 시작한 그의 노력이 마침내 일본이 추앙하는 대서예가로 성장했고, 그를 기리는 뜻으로 "비광"에는 비오는 날의 그의 모습과 개구리를 그려 넣은 것이다.

우리가 하는 홍보업무도 하다보면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일이 허다하겠지요. 그때는 "비광"의 개구리를 생각하며 재도전의 의지를 가져야겠다는 뜻에서 서두에 잡담을 드렸다.

2. 弘報擔當者의 位置

○물뭍동물과 같다.

—일반국민과 함께 생활하고 호흡하면서도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자 측에 서서 일의 내용을 널리 알리고 국민을 이해시키며 협조를 구하는 것이 홍보담당자의 위치이다.

—개구리가 사는 연못이 일반국민과 함께 생활하는 서식처라면, 뚝은 특정사업을 위해 등단하는 홍보의 무대이다.

—홍보담당자의 이러한 양면성은 때때로 쥐에도 섞이지 못하고, 새에도 끼지 못하는 박쥐로 오해받는 일이 있다.

3. 弘報擔當者와 同調者

○개구리는 떼를 지어 노래한다.

개구리의 합창은 때때로 시골마을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기도 한다.

○홍보담당자들은 관련기관간의 연대성을 강조한다. 정보의 교환과 협조체제의 구축을 중요시하며, 이를 통하여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

○서로 다른 자료나 목소리는 국민에게 인식의 혼란을 줄 뿐, 사업추진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나의 목소리는 잡음이 아닌 화음이고, 화음 만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동조세력으로 만든다.

4. 時流에 편승한 反對의 목소리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압도하는 반대측 목소리가 있다.

○국내의 반원전 활동

—'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 발족, '86년 반공해선언이 발표되면서 본격적 활동개시

—"공해추방운동연합"과 원전소재지의 핵발전소 건설 저지 및 피해주민생존권 대책위원회 등 몇개의 단체가 서로 연계하여 활동 중

—이들의 활동은 반전, 반핵, 평화의 슬로건을 내걸고 반원전도 함께 묶어서 유인물의 제작·배포, 대중집회, 시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야단체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20여개 단체가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예상되는 활동

• 반핵, 반미운동은 운동권 학생들의 투쟁목

표가 되어 시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크다.

• 재야와 연계하여 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

• 공해추방운동연합은 학생의 "농활"및 카톨릭농민회와 손잡고 계속 원전소재지 주민들을 선동할 것이다.

○외국의 반핵, 반원전 활동

—"그린피스"(녹색평화운동)는 1978년 경에 설립된 급진적 국제자연보호단체로 네덜란드의 암스텔담에 본부를 두고 '86년 소련 체르노빌사고 이후 그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데, 세계 40여개국이 이 단체에 가입돼 있고, 회원수는 약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지역을 비롯하여 미국, 카나다, 오스트리아, 일본 등 각국의 반핵, 반원전 단체는 대부분이 "그린피스"의 영향하에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들과의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지의 친구"로 불리는 환경보호단체는 이탈리아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린피스"와 더불어 반핵운동의 한 계파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서독의 "녹색당"이 있다.

환경보호, 핵반대, 경제성장국 및 대기업에 대한 비판 등 시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1979년 지방의회에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983년 3월의 총선에서는 27석의 의석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으며, 올해 선거에서는 그 의석이 대폭 늘어나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다.

이 녹색당은 지구의 파괴를 가져오는 공해문제와 원전의 확산반대 및 관리사회에서의 인간소외 고발 등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서독 녹색당은 최근 한국의 공해추방운동연합과도 관계를 맺고 있으며 쌍방간의 교환 방문이 있었다.

—이처럼 국내외의 반원전단체는 상호 연계돼 있으며 서로 간에 정보의 교환, 교환방문 등 적극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5. 反原電活動에 대한 對應姿勢

○時流에 편승한 반대운동이므로 시국의 흐름을 바로 잡는 일이 시급하다.

○정부에서도 동자부, 과기처가 주축이 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는 자체내에 홍보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국민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전 등 각 관련기관에서는 기업홍보와 원전홍보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과 직결된 사항이나 지역주민에 대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책임아래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반원단체에서는 생사를 건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반하여, 원전을 추진하는 측의 대응자세는 비교적 산만하다.

6. 弘報擔當者와 레퍼터리

○좋은 노래도 계속들으면 식상해 진다.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자료와 다양한 방법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

○韓國原子力産業會議의 홍보활동

—홍보책자 발간

그동안 여러 종류의 책자, 팜프렛 등을 제작·배포했으나 수량이 부족하여 골고루 배포되지 않았다.

—문화영화 제작·상영

황노인의 나들이, 再會, 내일을 위한 약속

—VTR 테이프 제작·배포

각 학교에는 배급 못했으나 올해부터 배포 계획

—TV 드라마, 소설 등 작품활동 지원

—공개토론회 개최

—지방순회강연회 개최

—언론인 간담회 및 보도자료제공, 취재협조

—칼럼기고 및 독자투고
—신문, 잡지 광고
—교사 및 학생홍보
• 과학교사 워크숍, 연수회 지원
• 교재제작·배포(비디오 필름, 궤도, 책자 등)
• 중학생 사생대회
• 고교생 작문모집, 포스터 공모전
—여론지도층 원전시찰 및 간담회 개최 (여성단체 포함)
—사내홍보 (직원 및 직원가족)
—국민의식조사

7. 弘報擔當者의 고민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일에 쫓기다 보면 책을 읽고 지식을 넓히는 기회가 없다.
—국민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기획해야 하는데 매양 사업추진자 측에서 생각하게 된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다 보니 그 소리도 시끄러운 소음 밖에 내지 못한다.
○개구리의 울음소리도 듣기에 따라서 소음으로도 들리고 농촌의 정겨운 노래로도 들린다.
—국민의 이해가 아쉽다.
○原電추진파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言論의 보도태도
—市民의 저항의식
○개구리 소리가 듣기 싫더라도 연못에 돌은 던지지는 말아야 한다.

8. 이런 資質을 갖춘 弘報擔當者가 필요하다

○건강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만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대중 앞에 섰을 때 신뢰감을 얻게 된다.
○수준급의 화술이 있으면 더욱좋다.
—정확하게 듣기 좋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일은 PA맨의 일차적 기능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알기 쉽게 말하라.
○쓰기실력을 길러야 한다.
—우선 기록하라(메모의 습관화)
—남이 쓴 것을 정독하라(신문사설, 기사 등)
—자주 써보라(기사 작성)
—말하는 기분으로 쉽게 쓰라
○단정한 용모는 호감을 갖게 한다.
—머리모양, 옷매무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지나치게 화려한 치장은 천박해 보인다.
○유모어를 익혀라.
—적절한 유모어는 서로 간에 친숙감을 더하는 묘약이다.
○자료를 모으는 일도 중요하나, 선택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한다.
—얻은 정보중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판별력이 있어야 한다.
○대화의 자리나 비판받는 것을 피하지 말라.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가식없는 충고에 귀를 기울여라.
○신뢰받는 인간이 되라.
—최선의 PA는 몸으로 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성실을 실천해라.
—한번의 거짓말이 신뢰를 잃게 한다.
○易地思之의 철학을 배워라.
—주민의 입장에도 서보고, 감독관청의 입장에도 서서 생각하라.
○충분히 준비하라.
—준비없는 대화나 연설은 9割 이상이 실패작이다.